이미지를 사랑하는 이들의 상상력

어린이책 기획집단 '재미마주'

'재미마주' 식구들 왼쪽 두번째가 대표 이호백씨.

'이미지 사랑'을 뜻하는 재미마주(J' aimimage)는 대표 이호백(37)씨의 철학이 담긴 이름이다. 우리말로 '감'이라고 표현할만한 '이미지'를 통해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키우고 인식과 감성의 폭을 넓혀 주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그림책 기획이 따로 없던 우리나라에, 재미마주는 독창적인 기획과 정성들인 제작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어린이책 기획집단이다. 이호백씨가 직접 글과 그림을 맡았던 《쥐돌이는 화가》 등 '쥐돌이 시리즈'는 우리 어린이책에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신선한 아이템으로 꼽힌다. 길벗어린이와 비룡소 등 여러 출판사와 작업을 함께했던 재미마주는 올해부터 독자적으로 출판사업에 뛰어들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수탉》 등 4권의 책을 펴냈다.

재미마주의 사무실은 '쥐돌이의 집'답게 예술적이다. 벽면에 스케치된 자유로운 구도의 쥐돌이 그림에는 벽모서리에서 삐죽 내다보는 친구도 있고 그리다만 얼굴도 있다. 이호백 대표의 가슴에도 쥐돌이 뺏지가 달려 있다.

"우리가 만든 책은 한권 한권이 모두 달라요. 출판사 색깔을 내세우기보다 각 그림책의 작품을 살리는 방향으로 책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림책은 그림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그림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이들은 테두리 선 하나를 그을 때도 조심스럽다. 글자체가 다양하지 못한 한글을 그림에 맞추어 고르는 일도 쉽지 않다. 딱딱한 인쇄체도 어울리지 않지만 너무 튀어도 안되기 때문.

좋은 그림책이란 기획에 의해 좌우된다고 그는 생각한다. 기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창의력. 작가의 자유로운 작업과 출판사의 일관성은 서로 방해요소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문제다. 그는 누누이 이미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미지는 낯선 것, 경험할 수 없는 것들도 포함하고 있으며 거부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 교육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레 '수용'과 '더불어 살기'를 배우게 한다"는 것.

재미마주는 앞으로 어린이를 위한 학급문고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펴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멀티미디어나 각종 미디어로의 변환작업도 계획중이다. — 마정미 기자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을 전한다

그림책 전문기획 '도토리'

'도토리'의 기획회의 왼쪽이 대표 이태수씨.

지난 11월, 보리출판사에서 분가한 기획집단 도토리(대표 이태수)는 지금까지 해온 세밀화작업을 더욱 보강하고 출판기획, 자체 기획출판, 일러스트 뱅크로서의 업무를 재개했다.

계절그림책이라는 타이틀로 《우리끼리 가자》(보리)를 내기도 했던 도토리의 특징은 자연의 실체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세밀화작업에 있다. 이태수·권혁도·이제호·윤봉선·정태관씨 5명이 시작하여 이제 7~8명의 화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나무를 그리는 이제호씨는 치악산밑으로, 물고기를 그리는 정태관씨는 소양호곁으로 이사해 자연을 관찰하고 한컷의 그림을 위해 보름 넘게 공을 들인다.

"자연와 전통그림이 저희 도토리의 특징입니다. 의외로 국내 동식물의 생태학 자료는 빈곤합니다. 도감조차 번역서 위주여서 사진과 인쇄 질이 떨어지고, 도감에 등장한 생물 중 멸종된 경우도 있을 지경입니다."

기획실장 심조원씨의 말이다.

아이들에게 좋은 책은 아름답고 화려한 책보다 엄마의 정성과 같이 수더분하고 정감어린 책이다.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자연 속에 뛰어노는 것. 도시환경에서 자연을 접하기란 쉽지 않다. 도시 속에 자연을 잇는 징검다리로서의 책을 만들자는 것이 도토리의 목표다. 8년 전부터 한길을 걸어온 도토리는 다른 출판사와 경쟁할 생각이 없다.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방향이라는 것.

"문제는 많은 화가들이 그림책 그림을 순수미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골라주는 법입니다. 어린이책도 그런 기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미술작가들은 자연과 정물에 약하다. 하루종일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관찰하는 정성을 들여야 디즈니처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동물 캐릭터가 나올 수 있다. 기본작업은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 시작부터 예쁘고 고운 그림만을 선호하면 창조성은 오히려 반감된다. 가장 구체적인 것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도토리의 철학이다.

— 마정미 기자

(철학동화)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대표전화 924-6161 팩시밀리 922-4993

1 나만이 아는 나라 —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2 장난꾸러기 꼬마전구 — E. 리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3 비릴로의 동물농장 — M. 아놀렛띠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4 평화의 나라 —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5 여덟가지 진짜이야기[과학 동화] — E. 산단께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6 보물이 숨겨져 있는 나라 —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7 천지창조 이야기 — E. 올리베로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8 진주섬 이야기 — I.G. 올리바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9 가장 소중한 성탄선물 — L.C. 알리만디 지음/노재윤 옮김/3,000원
10 하느님, 제 기도 들어보세요 — M. 라이스트 지음/강성위 옮김/4,000원
11 물방울의 추억[과학 동화] — E. 드랄라 지음/채윤경 옮김/3,000원
12 황새와 아기바구니 — M. 아놀렛띠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13 사랑을 나누는 곰, 보로 — R.M. 론디니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14 뇌 속으로의 여행[과학 동화] — F.B. 니카씨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15 거리의 화가 — F.B. 니카씨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16 가난뱅이 죠니와 아르니까 — E. 라아자르 지음/채윤경 옮김/4,000원
17 평화의 어린이들 — G. 스타스 지음/채윤경 옮김/3,000원
18 아프리카 동화 — 아자리안, 커닝햄 엮음/노재윤 옮김/3,000원
19 두 임금님 — F.B. 니카씨오 지음/채윤경 옮김/3,000원
20 늙은 자동차 —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21 코뿔소에게 안경을 씌워 주세요 — 이윤희 지음/4,000원
22 사각형의 세계[수학 동화] — F.B. 니카씨오 지음/김홍래 옮김/4,000원
23 흑인 소년 삼미 — G. 스타스 지음/김홍래 옮김/3,000원
24 새앙쥐 나라의 올림픽 — M. 아놀렛띠 지음/김홍래 옮김/4,000원
25 잠자는 사람은 물고기를 낚을 수가 없어요 — M. 보띠리에리 지음/노재윤 옮김/4,000원
26 우물 속의 보물 — L. 코몰리 지음/채윤경 옮김/4,000원
27 환상의 나라에서 — E. 올리베로 지음/노재윤 옮김/4,000원
28 자유를 사랑한 아기곰, 벨라[환경 동화] — M. 스트리안네제 지음/채윤경 옮김/4,000원
29 무지개 혹성 — P. 아클레르 지음/노재윤 옮김/4,000원
30 선생님이 들려 주신 이야기 — M. 보띠리에리 지음/김홍래 옮김/5,000원
31 착한 마녀 야바굴 — M. 제니시오 지음/김홍래 옮김/5,000원
32 큰 스승 소득이 — 이가을 지음/5,000원